



앞으로의 삶, 아시아 물류표준화에 올인!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
전무이사 박은규

본 인터뷰는 지난 7월 14일 물류신문에 기재된 인터뷰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를 이끌어 온 박은규
 상근부회장(前)의 퇴임과 앞으로 APSF의 전무이사로서의 활동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 편집 실 -

박은규 前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상근부회장이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아시아로 넓힌다.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 : 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전무라는 중책을 맡은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아시아 물류표준화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국제물류인 이었으나 앞으로 그 폭과 깊이가 더해 질 것이다.

30년전 용마유통 만들면서 물류와 인연



박은규 전무가 물류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1981년 동아제약 신규사업팀장 재직시 강신호 현 회장으로부터 그룹내 물류를 담당할 물류 기업을 만들라는 오더를 받았다는 그는 “당시 나는 물류에 있어 문외한이었다. 현재 의약품물류 전문의 증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한 용마로지스의 전신인 용마유통을 설립해 전무로 근무하면서 물류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회고한다.

용마유통에서 전무로 10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그는 한국물류협회(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를 창립한 서병륜 LogisALL 회장의 제의를 받고 1996년 3월부터 한국파렛트협회(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전신) 창립준비위원장으로 협회 설립 작업에 나서 그해 협회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후임에게 자리를 내줄 때까지 14년간 협회의 관리운영을 책임져온 박은규 전무는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설립의 주역이며 협회 역사의 산 증인인 셈이다.

아·태 국제표준과 APSF의 산파

그동안 그가 이뤄낸 것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는 없을 만큼 많다. 그는 “우리나라 표준파렛트인 T-11형(1,100mm × 1,100mm)의 보급 확산을 통해 국내 물류표준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한다.

그를 중심으로 협회가 3년마다 실시해온 국내 파렛트 사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창기 10%대였던 국내 표준파렛트 사용율이 2007년 조사시 40%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그의 14년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또 하나 그의 공적을 꼽는다면 그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표준파렛트 제정을 성사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점. 2003년, 그 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물류부에 있어 큰 획을 그은 해이다. T-11형 등 2개 파렛트가 아시아태평양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아시아역내 물류표준화와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 작업이 가속화될 것임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아시아태평양 국제표준이 제정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박은규 전무였음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물류인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박은규 전무는 아시아 물류표준화를 이끌어갈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 2006년 6월 APSF가 출범하는 데 산파역을 했다.

“나의 사명은 아시아 물류표준 확산”

박은규 전무는 앞으로 APSF 전무이사로서 연맹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역내 유닛로드 시스템 구축과 표준 물류기기 확산을 위해 올 인한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현재 물류인들과 추진하고 있는 물류문화재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 3개국이 아시아 토탈 통관물류시스템 구축 등 역내 물류합리화를 위해 협력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그 실천방안 마련작업을 수행하고, 마련된 실천방안을 현실화시키는 데 APSF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APSF 전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축하고 있는 얘기다.

그는 또 “물류문화재단은 우리나라 물류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함께 기념관(물류박물관) 설립을 통해 물류문화를 보고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지금 나는 인생 3막 5장에 들어섰다.”는 그가 3막 5장에서 보여줄 삶의 모습은 뚜렷하다.